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EMPEROR OF THE UNIVERSE

가제 : 우주의 왕이 된 니콜라스

저자 : David Lubar

출판사: Starscape

발행일: 2019년 7월 2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10세 이상 소설



- \* 총 270만 부 이상 판매된 『Weenies Tales』 시리즈의 작가가 선보이는 엉뚱하고 코믹한 3부작 우주 탐험기의 첫 번째 이야기
- \* “중학생용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Refugee』의 작가 알란 그라츠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고 넓은 우주를 책임지고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최초로 인간이 앉게 된다면? 그것도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찾아 다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우주로 오게 된 중학생이 그 주인공이라면? 기발한 상상력이 50편이 넘는 아동 소설과 시리즈를 발표한 작가가 3부작 시리즈로 들려줄 이 엉뚱한 이야기는 열두 살 니콜라스가 봄 방학을 맞아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날로부터 시작된다.

비틀즈를 너무 사랑해서 ‘비글스’라는 밴드를 조직한 엄마아빠가 호주로 해외 공연을 떠난 사이, 애완 동물인 모래쥐 헨리에타가 갑자기 사라졌다. 사실 부모님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다는 니콜라스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모와 삼촌에게 하루씩 집에 와서 잠을 자도록 약속을 해두었는데, 해군을 제대하고 교도소 소장으로 일하는 이모는 새벽부터 조깅을 시키고 집안에서도 아주 엄격한 규칙을 따르도록 호통을 쳐서 니콜라스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았다. 그나마 삼촌은 동굴을 개조해서 집으로 만들어 살 만큼 별난 사람이지만 TV도 실컷 보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려면 혼자 있는 편이 당연히 훨씬 좋았던 니콜라스는 요리조리 거짓말을 해서 소원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서 양전히 잠을 자고 있던 헨리에타가 감쪽같이 사라지자 당황한 니콜라스는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한다. 아무데도 보이지 않자 실망한 니콜라스는 헨리에타의 우리 앞에 우두커니 앉아서 손을 집어 넣고 헨리에타가 누워 있던 곳을 가만히 만져보던 중,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손에 어딘가에서 내리쬐는 강력한 빛이 가해지고 그 부분이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놀란 니콜라스는 냉동실에 열린 쇠고기 덩어리를 꺼내 실험 삼아 그 자리에 올려본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헨리에타도 이런 식으로 빛 속에 사라진 것일까? 니콜라스는 용기를

내어 손을 좀 더 깊숙이 집어 넣고, 잠깐 어지러운 느낌과 온 몸에 바람이 뽕뽕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몰려오더니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이상한 곳에 와 있었다! 사방이 막힌 커다란 방안 같은 곳에서 깨어난 니콜라스는 작은 탁자 위에 헨리에타와 조금 전 냉동실에서 꺼내 온 쇠고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헨리에타의 몸에 감긴 줄을 얼른 풀어내도 반가운 마음에 들어 올린 니콜라스는 평소처럼 ‘괜찮니?’하고 말을 걸었다가 기절할 뻔한다.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헨리에타가 말을 한 것이다! 놀라운 건 이 뿐만이 아니었다. 놀라워하며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탁자에 있던 쇠고기 덩어리까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넓은 초원에서 친구들과 풀을 뜯고 있었고 누가 큰 트럭에 태워서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즐거워했는데, 깨어보니 고기 덩어리로 변했다고 하소연을 늘어 놓는 쇠고기와 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뜬 채 꼭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하는 헨리에타를 앞에 두고 니콜라스는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한다.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때만 해도 빛을 통해 빨려 들어온 그 곳이 외계인의 우주선일 줄은 몰랐다.

니콜라스가 처음 헨리에타를 발견했을 때 사실 그 앞에 다른 생명체가 하나 더 있었다. 애벌레처럼 생긴 괴상한 생명체였는데, 문제는 크기가 치와와만해서 보자마자 니콜라스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 알 수 없는 존재는 묶여 있던 헨리에타를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발을 광광 구르며 비명을 지르던 니콜라스는 얼른 다가가서 그 벌레인지 원지 모를 존재를 밟아버렸다. 지구로 돌아갈 방법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거대한 벌레가 우주 어느 행성의 소중한 시민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 일로 니콜라스는 우주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다. 헨리에타, 그리고 말하는 쇠고기까지 데리고 부모님이 돌아오기 전에 집에 돌아갈 방법을 찾아 헤매던 니콜라스는 우주 곳곳에 살고 있던 희한한 외계인들과 만나고 의도치 않게 우주 통치권을 놓고 갈등 중이던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게 된다.

우주에 사는 무수한 종족을 모두 다스리는 왕의 자리는 공포 정치로 모두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독재자를 거쳐 왕이라는 타이틀만 가졌을 뿐 거의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았던 여왕이 차지했던 적도 있었다. 반드시 세습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보통 왕이나 여왕의 자손이 이어 받던 이 자리에 어쩌다 니콜라스가 오르게 되었을까? 시리즈 1권에는 우주 곳곳을 누비며 지구로 돌아갈 방법을 찾던 니콜라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그 방법을 발견한 직후 왕으로 선출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생김새도, 가진 능력도, 추구하는 목표도 모두 다른 외계인들이 생생히 묘사되고 그들과 함께 싸우고 친구가 되면서 니콜라스가 우주를 탐험하는 과정이 평범한 상상력을 뛰어 넘는 배꼽 잡는 사건들과 더불어 지루할 틈이 없이 펼쳐진다.

#### <저자 소개>

데이빗 루바(David Lubar)는 지난 25년 동안 어린 독자들을 위한 책을 50여 편 발표했다. 대표작으로는 ALA 최우수 YA 도서 상을 수상한 『Hidden Talents』와 만화영화 시리즈로 제작 중인 『My Rotten Life』, 총 270만 부 이상 판매된 『Weenies Tales』 시리즈 등이 있다. 『NATHAN ABERCROMBIE』, 『ACCIDENTAL ZOMBIE』 시리즈도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중이다.

제목 : ROSIE LOVES JACK  
가제 : 로지의 사랑  
저자 : Mel Darbon  
출판사: Usborne Publishing Ltd  
발행일: 2018년 9월 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브라질, 프랑스 판매 완료**

- \*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즐거움을 느꼈다. 다 읽고 나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 - 코스타 상 수상작 『The Bombs that Brought Us Together』의 작가 브라이언 코나한
- \* “역경 속에서 사랑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책을 찾아나선 로지의 여정은 그녀의 놀라운 성격과 용기만큼이나 잊지 못할 것이다.” - 『Eden Summer』의 작가 리즈 플래넨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잣대와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이 어딘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고, 심지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이 ‘다르다’고 분류한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며 그 오만한 편견을 비웃는다. 자폐를 앓는 형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장애아를 향한 세상의 매정하고 잔인한 시선을 체감하고 그런 시선을 없앨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온 작가는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로지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엄마아빠의 부족함 없는 사랑과 응원에도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로지 역시 늘 주눅 들어 있기 일쑤였다. 그런 로지에게 년 뭘든 할 수 있고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로지의 남자친구 잭이었다. 한 번씩 화가 치밀면 통제하지 못하고 불같이 표출해버리는 문제 때문에 로지와 같은 특수 교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잭은 캔버스를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릴 때만 겨우 진정되던 마음이 로지와 함께 있을 때면 더욱 편안해지고 머릿속도 맑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맑고 순수한 로지의 초록색 두 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환하게 미소 짓는 로지의 천사 같은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이 되어 매일 함께 공부하고, 산책하며 사랑을 키워갔다.

로지를 만난 뒤로 벌컥 화를 내는 빈도가 많이 줄었던 잭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시 증상이 악화되었다.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큰 위기는 피해가던 중, 평소에도 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급생이 미술 수업 시간에 은근히 약을 올리자 잭은 화산처럼 폭발해버렸다. 커다란 작업대를 뒤집어 엎고, 약 올린 대상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의자를 번쩍 들어 올려 창문으로 뺏다 던져버린 것이다. 급기야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미처 피하지 못한 미술선생님의 얼굴로 박살 난 유리창 파편이 날아와 다치고 말았다. 온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불과 몇 개월 전 다른 동급생을 때린 일로 이미 마지막 경고를 들었던 잭은 보다 집중적으로 정서 상태를 치료해줄 시

설로 보내졌다. 난동을 부린 날, 멀리 보내져서 로지와 헤어져야 할 까봐 겁이 나서 경찰서에서도 망친 것도 잭 부모님이 잭을 그 시설로 보내는 결정을 부채질했다. 잭과 결혼하고 둘만의 가정을 꾸리며 아이도 낳고 강아지도 키우면서 살 날만을 꿈꾸던 로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다. 사람들 말대로 잭이 한 행동이 나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둘이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잭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로지는 그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용돈과 소지품을 몰래 챙겨 잭이 있는 브라이언으로 향한다. 이때가 크리스마스를 3주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다.

시작은 좋았다. 로지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 기꺼이 나서서 도와준 사람들도 많았다. 로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못된 사람도 있었다. 로렌스라는 친절한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 전철을 타고 어떤 역에 내린 로지는 밤이 되자 유스텔에 혼자 들어가서 독방을 빌린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유스텔 근처 공원을 거닐던 중, 어떤 남자가 다가와 로지에게 말을 건다. 자백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로지의 이야기를 듣더니 잭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로지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가 납치범이며 오갈 곳 없는 소녀들을 데려다 성매매를 시키는 자라는 사실은 고사하고 세상에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백의 차에 올라 낡고 더러운 집으로 간 로지는 그 집에 살고 있는 두 소녀와 만난다.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코트니와 달리 먼저 와서 말도 걸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리세트를 통해 로지는 두 소녀가 이곳에서 자백이 시키는 대로 남자들과 만나 밤을 보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자백은 옷을 사주겠다, 화장을 시켜주겠다며 로지에게 남자들과 함께 파티를 하자고 제안하는데 이미 로지의 부모님이 딸의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라 TV며 라디오에 로지의 사진이 계속 나오는 통에 자백도 마음대로 로지를 데려갈 수 없었다. 위험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백은 로지를 가뒤편에 두고, 아무도 보지 못할 시간에 쓰레기처럼 하천에 버린다. 마침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주인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로지에게 또 한 번의 행운이 찾아온다. 방송을 통해 로지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온 것을 알고 있었던 톰이라는 그 구출자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그러나 겨우겨우 잭이 있는 시설 근처까지 와서 택시에 오르자 로지를 알아본 택시기사는 부모님이 걱정한다며, 목적지를 바로 코 앞에 두고 차를 돌려 경찰서로 향한다. 로지의 험난한 여행은 이대로 끝이 나는 걸까? 장애인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인식을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특별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멜 다본(Mel Darbon)은 무대 디자이너, 화가로 일하면서 장애인과 청소년 미혼모, 소년범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바스 스파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 과정을 마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